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

Essay

건설리더의 해는 뜬다.

장태선

헬조선. 2017년 작년 우리나라를 가장 잘 나타내는 키워드다. 한국의 옛 명칭인 조선에 지옥이란 뜻의 접두어 헬(Hell)을 붙인 합성어로, '지옥 같은 한국 사회'라는 뜻이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다라는 말이다. 극심한 빈부격차, 삶의 질 최저수준 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대학생인 우리에게 가장 와 닿는 문제는 바로 취업문제일 것이다.

4학년이 되면서 '나는 취업하겠지', '취업 못하는 사람들의 암살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반기 취업을 준비했다. 나의 이런 생각은 와장창 박살나버렸다. 건설 분야의 취업 상황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빴다. 인원도 별로 안 뽑을 분더러 취업을 미루고 미룬 취업 재준비생들이 넘쳐났다. 그 속에서 단지 학부과정만 졸업한 나는 그저 흔한 취업준비생(이하 취준생) 중에 한명이었다. 당연히 결과는 취업 실패였다. 취업에 실패하면서 '뭐가 잘못된 것일까?'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인적성 평가를 꾸준히 준비하지 않은 거? 면접캠프를 안가본거? 건설을 선택한 게 잘못된건가? 라는 무책임한 생각들을 했다.

하지만 이 생각들이 나의 취업실패의 원인이 아니었다.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를 들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나는 나 스스로를 몰랐으며 건설업계 자체에서도 아예 모르고 있었다. 즉, 내가 건설업계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저 취업에 눈이 멀어 남들이 다 똑같이 취업준비를 하니까 취업준비를 하고 기업에서 제시하는 역량에 나를 껴맞추고 말도 안 되는 말들로 나를 포장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트렸다. 하지만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에 오면서 이런 생각들이 바뀌었다.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의 어떤 점이 나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을까?

우선,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 강의에서는 건설 실무에 계신 분들이 직접 와서 강의를 해주신다. 그러다 보니 '날 것' 그대로의 경험들을 들을 수 있었다. 대학교 과정에서는 이론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무 경험얘기를 들을 수 없다. 듣는다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이며 알찬 내용이 별로 없다. 건설리더 아카데미에 6주 동안 참여하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알차다'였다. 그리고 '이론과 실무는 전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었다. 예를 들어, 수업 과정 중에 송도 파라다이스시티 1-2 건설현장을 견학해보는 기회가 있었다. 현장 단장님과 면담시간에서 현장에서 왜 저런 공법이 쓰이니까? 이론상으로는 이런 공법이 더 좋다고 배웠었는데,, 라는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다. 단장님은 웃으시며 이래서 학생들이 더욱 현장에서 많이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이유를 친절히 설명해주셨다. 별 거 아닌 질문과 답이었지만 나에게겐 신선했고 현장에 가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다.

건설을 배우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현장에 나가서 버틸 수 있을까? 해외 현장에는 진짜 가기 싫다. 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 하지만 실제 건설현장을 방문해 보니 내가 배울 수 있는 길은 '현장' 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현장근무 정말 싫다, 해외현장 가기 싫다 등 과 같은 이전의 어리광 같은 생각들이 현장에 꼭 가고 싶고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생각이 바뀌니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건설 위주의 따분한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인생 선배들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었다. 대학교에서 아무리 과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도 나의 3,40년 뒤 미래가 어떨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선배들의 나이가 어린 것도 있지만 다들 취업만 하기 바빠 꿈 따위는 다 접어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에서는 꾸깃꾸깃 접은 꿈을 조금이라도 펴주는 기회를 제공한다. 건설업계에서 내로라 하는 분들이 과감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신다. 그걸 들으며 나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있는 수업도 해주신다. 4차 산업혁명, AI 등 미래에 분석과 인공지능 전문가 분들이 강의를 해주신다. 이를 통해 앞으로 내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어떠한 점을 고려해보면 더 좋겠구나 라는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취업이라는 문턱에 막혀 꾸깃꾸깃 접어두었던 나의 꿈을 다시 펴보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다. 나도 한 때는 꿈을 꾸며 멋진 삶을 그리고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인데 취업이라는 문턱에 내 꿈을 넘어뜨리고 취업이라는 문턱만 넘자라는 생각으로 작년을 살았던 것 같다. 그러다보니 스스로 피폐해지고 어느 순간 내가 무척 초라해보였다. 하지만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건설 각 분야의 리더 포지션에 계신 분들의 철학을 들으면서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몰입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겼다. 비록 취업이 조금 늦더라도 나의 방향성을 믿고 노력하고 싶어졌다. 강사분들 중 몇몇은 연락해도 좋다는 말씀까지 해주셔서 방향성에 대해 여쭙고 있다.

Happiness is the mission. 나의 인생 좌우명이다, 미션을 달성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아직 없다. 그렇다고 내가 불행하다는 말이 아니다.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인생의 좌우명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다. 이제 그 미션을 달성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건설을 공부하는 친구라면 아마 한 번쯤 건설업은 죽었다라는 식의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건설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껴본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정말 건설업의 일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시대 자체가 변하고 있고 건설업도 다른 다양한 분야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다.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에서 강의해주는 강사님들 또한 이런 생각을 갖고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셨다. 식상한 표현이지만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다. 그동안 어두웠다면 이제는 해가 뜰 차례인 것이다. 한 달동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건설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열정과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를 신청한 우리들을 보며 해가 떠오르고 있음을 느꼈다. 우리의 해는 곧 뜰 것이다!